



포커스

8.15 경축사 의미와 평가

남 성욱 교수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커스 8-15 경축사 의미와 평가 통일 돋보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종합 8위 Today 남북 차레상도 차리고 성묘도 가는 북한의 추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한글학교 선생님 우한나 '야 코하유 코래유!' 통일 Talk 통일은 고향 가는 길, 베를린장벽에서 통일을 노래하다!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북한사람'이어서, 나에게만 그런 거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낌 있는 여행 가을이 오는 녹차밭길에서 차 한 잔에 취하다 보성 통일 웹툰 아빠! 말이 어떻게 경사져요? 통일 레시피 한가위, 남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더해 줄 달콤한 감주(甘酒)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정부 3.0
지나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의견

<p>통일 플러스 포커스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 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 남산봉화식 NUAC 뉴스</p>	<p>즐거움 통일 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표, 느낌표 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8.15 경축사 의미와 평가

리우 올림픽 기간 중에 발표된 광복 71주년 8.15 경축사는 예년과는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추석 이산가족 방문’ 등 8·15 경축사에서 통상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각종 대북 제안을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이후 냉각된 남북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박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난 2월 북한 정권교체 (regime change)를 언급한 이후라 전체적으로 교류보다는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북한 지도부는 협상 상대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장을 받은 교체 대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항상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제안과 유화 메시지를 내놨다. 2013년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2014년에는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개설·확충을 제안하며 그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한을 초청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직후였던 작년 8·15에도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명단 교환 등을 제안했다.



박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쓰며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특히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모호한 점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통일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박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쓰며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고위 관료가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하는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간부와 주민을 함께 묶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규정한 ‘김정은과 고위 간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급 간부와 일반주민들’을 통일의 동참 및 수혜 대상

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 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모호한 점이 있었다. 북한 주민들이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통일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아래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미래구상이다.



통일 미래의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세상이다.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을 선대의 수준으로 장악한 김정은의 하향식(top-down)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포용해야 하고 통일시대에 동행할 대상은 고위층이 아니라 일반 주민인 것이다. 이 주민들과 김정은 정권 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하급간부들은 주민들이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도화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변화에 중요한 요인들이다. 최근 체제선전에 앞장섰던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탈북하여 망명을 시도하는 것은 중간 간부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이탈하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안보에 대해서는 사드 국론(國論)의 결집을 강조하였다. 국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축사는 우리 앞에 닥친 다양한 도전을 '긍정의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경축사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박 대통령은 6,500자로 구성된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네 번 썼고, '자신감'(4회)과 '자긍심'(1회) '공동체'(4회) 등의 단어도 많이 사용했다. 통상 8-15 경축사는 일본이나 북한, 동북아 안보 문제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이날 경축사는 3분의 2 이상을 대국민 메시지와 국내 문제에 할애했다. 문제 해결을 외부보다는 우리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제도 우리내부에 있고 따라서 해결책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하다. 천하의 흥망은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국민모두가 경축사의 함의를 새겨야 할 때다.



남성욱 교수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前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종합 8위

남미에서 개최된 최초의 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순위 8위를 차지해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또한 북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34위를 차지했다.

이번 올림픽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UN의 대북제재가 이뤄진 가운데 치러졌지만, 남북한의 이은주, 홍은정 선수(기계체조)가 다정한 포즈로 함께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 사진은 '위대한 몸짓'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단 둘이 아닌, 전체 남북선수단이 활짝 웃는 얼굴로 함께 출전할 그날을 기대하며 남북한의 올림픽 주요 사건을 짚어 본다.

■ 남북한 올림픽 역대 최고 순위는?



대한민국
서울올림픽 종합 4위
(1988년)



북한



런던올림픽 종합 20위
(2012년)

■ 관심 속에 치러진 남북한 맞대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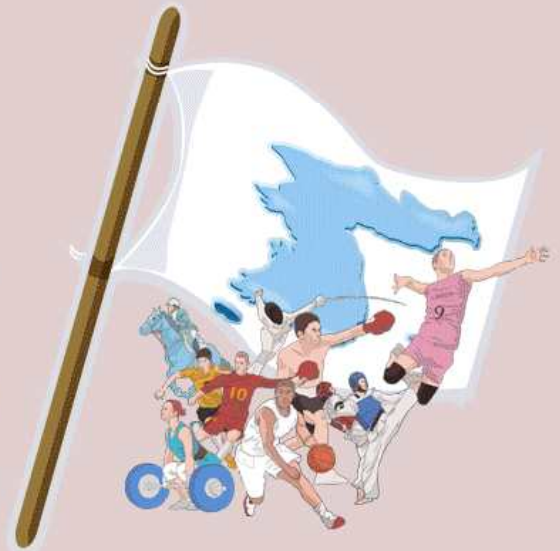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탁구 단체전
3-1로 대한민국 승리, 8강 진출

런던올림픽 남자탁구 단체 16강전에서 남북한이 만났다. 1번 단식에 출전한 우상은 선수가 북한의 김혁봉 선수에게 0대 3으로 패하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어 벌어진 2번 단식, 3번 복식, 4번 단식에 출전한 주세혁, 오상은, 유승민 선수가 차례로 승리를 거두하며, 북한을 3-1로 물리치고 8강 진출을 결정지었다. 남자단체팀은 이 올림픽에서 결승에 진출, 중국과의 대결에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남북한 동시 올림픽 입장은?

한반도기 아래 남북한이 하나로!
올림픽 3회, 아시안게임 2회,
유니버시아드 1회

남북한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분단국으로는 사상 처음 양국 국기 없이 한반도기를 들고 개폐회식에 임해, 전세계에 올림픽 정신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부산 아시안게임(2002),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아테네 올림픽(2004), 마카오 동아시아게임(2005), 토리노 동계올림픽(2006) 등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 입장했다.



■ 남북한 올림픽 포상금 비교

대한민국 브라질 올림픽 포상금



연금(매달)	100만 원	75만 원	52만5천 원
--------	--------	-------	---------



포상금(1회) 6,0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

병역

예술 · 체육요원 복무

※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
※ 연금은 메달 숫자에 관계 없이 월 상한 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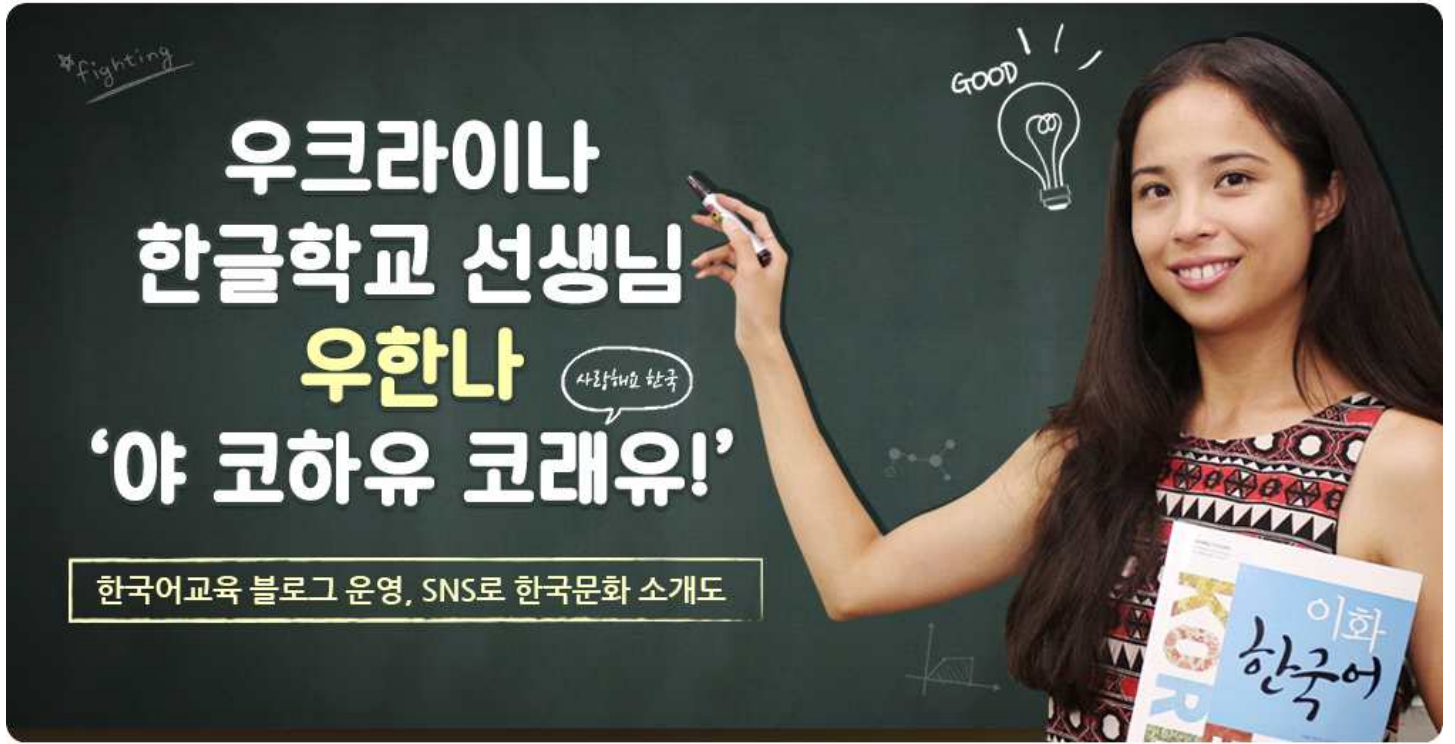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정부의 연금 및 포상금, 병역혜택 외로 각 협회 및 자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궁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양궁이 금메달 4개를 모두 획득할 경우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골프는 금메달 3억 원, 은메달 1억5천 만 원, 동메달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펜싱선수와 양궁선수들에게 금메달 700만 원, 은메달 500만 원, 동메달 100만 원을, 태권도 오혜리선수와 사격 진종오 선수에게 각각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북한 올림픽 포상금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연금 혜택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처럼 메달의 색깔에 따라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메달리스트들에게 '공화국 영웅'과 '노력 영웅' 등의 칭호와 함께 고급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 등을 지급한다.

과거 마라톤 정성옥 선수는 1999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최고 수준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고,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여자유도 48kg급 금메달리스트 계순희는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다. 특히 계순희는 당시 일본의 닛산자동차 경차를 선물 받기도 했다.



한국어교육 블로그 운영, SNS로 한국문화 소개도

“선생님, 한국어에서 읊니다와 습니다와 합니다의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한글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스물세 살의 고려인 3세 우한나 씨. 문법이란 그렇게 언어를 쓰기로 한 일종의 규칙인데, 학생들은 ‘왜 그렇게 쓰는지 이유를 알려 달라’며 졸라 대서 난처해질 때가 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CIS(독립 국가 연합)지역 수강생들이 늘어난 요즘, 오프라인 강의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소개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우한나 씨를 만났다.



가정에서 한국어 배우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한글공부 시작

현재 우크라이나 ‘비전센터 한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자원봉사중인 우한나 씨(키예프대학원 한국어 석사과정)는 지난 6월 재외동포재단의 ‘CIS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로 한국에 왔고, 9월 초까지 이화여대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받았다. 유튜브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그녀는 CIS 지역의 한류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려인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드라마나 케이팝과 같은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고려인’인 우한나 씨가 한국어를 하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녀의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없었다. 우한나 씨는 고려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여섯 살 이후로 아버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러시아 정세가 불안정했을 때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된 이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엄마와 우 씨는 사할린을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사했다고 한다. 키예프에서도 우씨는 고려인 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 고려인들이 주로 친 러시아 성향을 가진 남부 크림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힘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서울대 교환학생 시절 ‘한국 소개’ 유튜브 개설, 19만 건 조회

우한나 씨가 본격적으로 한국문화를 접한 건 2014년,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면서 부터다. 오자마자 한국문화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그녀는 어떻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개설했다. 한국음식을 맛보고 여행하고 각종 문화를 체험하면서 이

를 러시아어로 재미있게 소개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특히 한 과자제품을 모티브로 한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니 현재 19만 건을 넘어서고 댓글만 300개가 넘게 달렸다. 이에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블로그도 개설해 한국어 공부를 하는 CIS 지역 청년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블로그 회원 역시 4만 명에 이른다. 교육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주로 CIS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팝과 드라마를 소재로 활용하는데, 이를 구독하는 CIS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서울은 제 꿈이다. 한국어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등의 피드백을 보내오곤 한다.

키예프에서는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우한나 씨는 현재 초급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릴 적부터 자국의 언어 외에도 러시아어, 영어 등을 함께 배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외국어를 습득하긴 하지만, 한국어 문법만큼은 고개를 설레설레 찡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문법을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 ‘합니다 읍니다 습니다’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학생들은 ‘왜요?’라고 물어봐요. 왜라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원래 그래!’라고 말할 수밖에요. (웃음)”
또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드라마가 방영된 다음 날엔 드라마 장면 속에서 본 것들을 질문해오는 바람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고려인에 보다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되어야

우한나 씨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들의 경우 오히려 CIS사람들보다 더 한국문화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고려인 3~4세대는 ‘우크라이나어와 영어 러시아어만 해도 성공하는데 문제가 없고, 부모님 세대도 못하는 한국말을 왜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하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며, 고려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상실하지 않으려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고려인들 역시 한국인들과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아직 차세대 고려인들은 그 나라에 적응하기 바쁘다 보니 오히려 현지인들보다 한국에 더 관심이 적는데 한국에서도 이들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한나 씨는 특히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크림반도의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다 보니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 온라인 기사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녀 역시 실제로는 고려인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서는 정말 많은 고려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서로 대치상태인 것처럼,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역시 친유럽과 친러시아로 갈등하는 크림반도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분리주의자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재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한나 씨는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남북한은 한민족인 만큼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래만큼은 언제든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어 선생님 자격으로 한국에 온 우한나 씨의 각오는 2년 전 서울대 교환학생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 전에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익히는 데 열중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한국어 교습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진지한 태도로 배우며 익히고 있었다. 우한나 씨는 앞으로 한국교육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졸업 후 공무원이 되어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문화적, 경제적으로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자국의 고려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 / 기자회견〉



통일은 고향 가는 길,
베를린장벽에서 통일을 노래하다!

하나통일원정대 독일 통일노래 공연 후기

개량한복을 입은 서른여덟 명의 청년들이 베를린장벽과 브란덴부르크문(門) 앞 광장 앞에서 '고향의 봄'과 '홀로아리랑'을 부르던 날. 독일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고떡없을 것만 같던 저 단단한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휴전선도 언젠가 그 문이 활짝 열릴 거란 생각으로, 북한에도 하루빨리 찬란한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인들을 향해 통일노래를 부르며 애달픈 눈물을 뿌렸다.



박영철

'위드유(with-Unification)'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NGO단체에서 탈북청년교육지원, 독거어르신 먹거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 중.



김영호

하나통일원정대 대장. 2006년 남한에 정착한 후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 현재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며 탈북 후배들이 건강한 통일인재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박미연

학창시절 통일동아리 활동을 겸하면서도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최우수상(2010년)을 수상한 재원. 현재는 한 경제단체에서 근무하는 세내기직장인으로, 통일의지를 다잡고자 원정대에 참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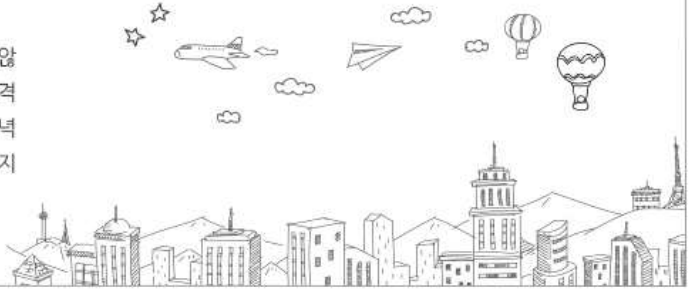
이채연

정착하자마자 3년간 열심히 일해 엄마와 동생을 남한으로 데리고 온 다음, 뒤늦게 대학을 나왔다. 최근 웨딩플래너로 취업했으며, 남북한 축구봉사단 매니저로도 활동 중.



현정범

10여 년 간 탈북민임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지만, 대학(경기대 법학과) 진학 후 본격적인 통일활동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누구 못지 않은 통일열정을 가진 청년.



독일 베를린 장벽 앞에서 노래하며 눈물 쏟던 날

e-행복한 통일 : 2년 전 가수 이승철 씨와 함께 한 독도 합창공연이 SNS 등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원정대 활동은 어땠나요?

김영호 : 사실 공항 사정으로 7월 24일 당일에 도착하는 바람에 다들 잠을 못 자고 바로 공연에 들어갔어요. 큰 공연만 두 건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관객이 적었던 장벽박물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감을 잡았고, 두 번째 이어진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최상의 공연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노래는 한국어로 불렀지만 영어멘트를 통해 우리가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설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주말 오후 3시에 광장에서 공연을 한번 한 뒤, 관객들의 사인을 받고 다시 한 곡을 더 부르기로 했는데, 사인 행렬이 길어지는 바람에 공연 시간이 약간 지체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우리의 통일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요.

박영철 :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며 열심히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일란트 교회 공연에서는 파독 간호사 등 현지 교민들이 주로 오셨는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탈북청년들이 와서 노래를 하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다고 하시면서요.

김영호 : 여름 휴가철 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독일 교포사회 역시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의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탈북청년들을 봐서라도 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양쪽 교민들이 다 같이 모이셨어요. 다만 뮌헨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나서 독일 국민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던 건 좀 안타까웠지만요.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공연

박미연 : 두 번째 날에 거리를 지나는 외국인들이 저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합창을 했던 코리안 싱어라면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놀라웠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던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전 세계가 우리 노래에 귀 기울여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행실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죠(웃음).

이체연 : 막상 장벽 앞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이곳 독일 사람들은 하나가 됐는데 우린 언제 하나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이런 메시지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봤어요.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공연



▲독일 브란덴부르크 광장 공연



‘고향의 봄’ 노래에 담긴 그리움, 아직 북한에 남은 내 이야기

e-행복한 통일 : 통일원정대 합창에서 ‘고향의 봄’ 노래도 함께 부른 이유는?

박영철 : 통일이 되는 날은 탈북청년들이 ‘고향 가는 날’이에요.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내 고향이 함경북도 함흥입니다.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이재연 : 고향의 봄을 부를 때는 아팠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고향의 봄은 우리 고향에서도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남한도 이 노래를 부른단 게 신기했어요. 저는 고향에 가면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생일날 저녁에 친구들이 파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가겠다’고 해놓고 그날 밤 북한을 떠나왔거든요. 그래도 가장 미안한 사람은 아با예요. 저와 함께 남한으로 오시다가 남은 가족들 걱정에 돌아섰다 붙잡히셨어요. 탄광에서 노역을 하시던 중 갱도가 무너져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6년 전 일인데 왜 그때 같이 남한으로 오자고 설득하지 못했을까 계속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파요.

e-행복한 통일 : 그럼 가족들은 아직 북한에 있나요?

이재연 : 아뇨. 아با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거 같아요. 엄마랑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죄인이 될 것 같았어요. 저 3년 동안 미친 듯 일만 해서 번 돈으로 남한에 모셔왔어요.

박영철 : 처음에는 남한에서 적응하느라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요. 어느 날 중국에 돈을 벌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오래 굶어서 기력 없이 누워계시고 동생은 멍한 눈으로 마당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남겠다고 하셨어요. 떠나는 날 동생은 ‘아빠가 계속 우리 보고 계신다’며 자꾸 뒤를 돌아봤지만, 전 마음이 약해질까 봐 보지 못했죠. 몇 해 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더 많은 돈을 드리지 못하고 나온 게 두고두고 가슴이 아파요.



스스로 돕는 모임 위드유 활동, 탈북후배들을 향한 응원가

e-행복한 통일 : 통일원정대는 남북한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보자는 생각으로 탈북청년과 남한사람들이 같이 만든 팀이라고 들었어요. 화합하는데 문제는 없었나요?



김영호 : 탈북청년 25명에 남한 청년과 음악인 13명이 함께 했는데 남북한 구분을 떠나 이제 ‘형님 동생’하며 서로 친해졌어요. 직장인이 절반, 학생이 절반이었는데, 매주 3~4시간씩 연습했고 녹음을 앞두고는 주말에 텐트텐(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하는 연습)을 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죠. 다 같이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 한 명이 음 이탈을 하면 전원이 다시 나와 연습하고 녹음을 하기도 했지만 다들 불평 없이 잘해줬어요.

현정범 : 탈북청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한청년들도 같이 한다는 말에 화합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별로 다른 점을 찾지도 못했고 서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통일이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e-행복한통일 : 통일원정대를 이끈 위드유 모임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박영철 : 주로 2000년대에 북한을 탈출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 친구, 선후배들이 2011년에 만든 모임이에요. 북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남한에 적응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멘토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탈북 후배들을 돕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합창을 하게 된 건, 2013년 처음 마중물 음악회를 열어 홀로아리랑 중창을 선보였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부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e-행복한통일 : 2014년에는 가수 이승철 씨와 독도에서도 합창을 했죠? (웹진 19호 참조)

박영철 : 네. 위드유를 포함한 45명의 탈북청년이 독도에 갔어요. 독도는 남북한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이잖아요. 독도가 남과 북을

있는 징검다리인 것처럼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탈북청년들이 통일의 징검다리가 되겠다, 통일을 향한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죠. G&M글로벌 문화재단의 후원이 있긴 했지만 독도에 가는 비용은 전원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마련했어요. 그리고 독도에서 합창을 하면서, '우리 하나가 돼야 한다, 희망의 눈으로 바라봐 달라'고 선포했죠. 이번 통일원정대 활동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위드유는 '탈북민 스스로를 돕자'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크게 소리는 나지 않지만 알찬 활동들을 하나갈 겁니다.



▲ 광복 71주년 기념 귀국 공연을 앞두고 연습 중인 원정대원들



'탈북민' '남한주민' 구분 말고, 서로 신뢰 쌓는 게 중요

e-행복한통일 : 남북한 주민이 화합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현경범 : 평소엔 별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북한사람 누군가가 부정적 이슈로 뉴스에 나오면 북한사람 전체가 나쁘게 보이곤 하잖아요. '탈북민'이라고 구분지어 보도하니까요. 따라서 남북한사람 구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북한사람 역시 남한사람들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뭘 지적하면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했다가, 부드럽게 대하면 '불쌍하게 보는 거냐'고 투덜대고... 서로 믿음을 쌓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영호 : 북한 친구들은 너무 조심스러워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남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또 탈북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정말 완전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일단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니까요.

이채연 : 회사든 학교에서든 제가 만난 남한 사람들은 욕할 때 욕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면서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줄 알았는데 '그게 어때서?'라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다 같은 한국인일 뿐이라고 말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박영철 : 이산가족 생존 어르신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열망들이 식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때 일수록 탈북청년들이 남한사람들과 함께 통일의 불씨를 지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냄비 속 물의 온도가 올라가듯 국민의 통일 의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박미연 : 통일을 앞당기려면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독일에서 느낀 건, 독일이 통일을 위해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묵묵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통일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 고향도 이북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신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잊지 말고 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갖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선은 제가 남한 직장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 위 토크 내용은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오늘의 베를린에서 내일의 평양을 본다'는 주제로 이뤄진 하나통일원정대 활동(KEB하나은행 후원) 후기입니다.

〈글.사진 / 기자회견〉

차례상도 차리고 성묘도 가는

북한의 추석



지철호 (NAUH 대외협력팀장)

남한에서는 '추석' 하면 '민족대이동'이란 말이 먼저 떠오른다.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이 일제히 귀성길에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마다 명절이면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자동차로 꽉 차 주차장을 방불케 하곤 한다. 요즘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연휴 동안 해외여행 등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에게 추석명절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웃음이 넘치는 날'이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과 이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려오기도 하지만 말이다.

공휴일로 지정된 건 80년대 후반, 성묘 풍습은 남아있어

그렇다면 북한의 추석은 어떤 모습일까? 필자는 북한의 한 탄광마을에 살았던 사람으로, 서민들의 소박한 추석나기 풍경 위주로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 민속 명절을 봉건 잔재로 취급하면서, 주민들에게 봉건유습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따르도록 했다. 1988년부터 추석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긴 했지만 쉬는 날은 딱 하루뿐, 그 이상 휴가를 낼 수는 없었다.

북한 역시 남한처럼 추석 때마다 조상의 묘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성묘 풍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다만 이동의 자유가 없어 여행증 없이는 먼 지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귀향길, 귀성길 행렬'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여행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열차가 며칠에 걸쳐 가기 때문에 도중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골치아픈 스트레스 중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올해처럼 더운 날은 상한 음식도 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정이다.



▲ 추석을 맞아 성묘하러 가는 북한 주민들

차례상에 쓸 음식재료 찾으러 운동네 발품

차례상의 경우 남한에서는 전통 방식에 따라 대추, 밤, 배, 삼색나물, 송편, 식혜, 적 등의 음식들을 장만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정형편에 맞게 흰 떡과 술, 나물 등을 준비한다. 추석준비를 위해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거의 모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개인 교통수단(자가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례 음식 준비를 위해서는 여기저기를 발로 뛰어야 하는 고단함이 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차례 음식을 사는 것이 장사꾼에게 이득만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집에서 직접 모든 음식을 만든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었을 때 북한 명절 즈음해서 남자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은 여성들로 가득한 방앗간에 가서 물에 불린 쌀을 기계(로라기계)에 넣고 가루를 내야 하는 일이다. 깊은 밤까지 기다렸다가 떡가루를 내오기 일쑤인데, 운이 나쁘면 수수나 좁쌀, 기장, 찰강냉이(옥수수) 뒤에 내리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흰 쌀을 가져가서 떡가루를 내왔다고 해도 잡곡의 색을 띠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아 타박을 받게 된다.



▲ 북한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명절음식

술과 두부 역시 동네 개인집을 통해 구해야 하고 그 외에 해물과 육류, 콩나물, 무 등 여러 가지 식재료는 장마당을 통해 구한다. 조미료 역시 장마당에서 사오는데 운이 나쁘면 중국산이나 개인이 만든 가짜(북한말 요재)조미료를 속아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추석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지게에 길어 와야 하고 더 많은 쌀감을 구해 와야 하다 보니 추석나기가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난다. 필자가 살았던 동네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추석 때 송편을 만들어 먹는 집이 드물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흰떡과 함께 송편을 빚어서 나누었다. 북한의 송편은 소로 콩을 넣고 그 크기는 남한송편 보다 훨씬 크다.

📌 집에서 차례 지내지 않고, 주로 성묘 가서 음식 나눠

한편, 북한에서는 남한처럼 집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고 주로 음식을 장만한 뒤 조상의 묘에 가서 성묘를 한다. 밤 새워 장만한 음식을 싸 들고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한 다음 음식과 술로 제를 지낸 뒤 큰절을 하는 것은 남한과 같다. 다만 대대로 한 지역에서 터를 이뤄 살아온 시골 주민들과 달리 대도시 주민들은 산소가 멀리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간단하게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나 도보를 통해 성묘를 가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콩나물시루같이 혼잡한 시간을 참아야 한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일단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족들과 준비해간 음식을 즐겁게 먹으면 된다. 묘지 주변에는 이웃 사람들의 묘도 있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여러 집이 한데 음식을 모아놓고 함께 맛보곤 한다.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계시던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바탕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 추석 성묘하는 북한 주민들

오후부터는 이웃 친지들이 집으로 놀러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명절 때 노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주로 저녁이 되면 수건돌리기 게임과 같은 오락회를 하거나 기타를 치면서 남한 노래를 몰래 부르는 '신식 남자'가 되기도 하며, 마음에 드는 이성 있다면 용기를 내보기도 하는 하루이다. 혹은 가까운 친구들끼리 북한의 사회상에 대해 푸념을 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서로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는 하루이기도 했다. 또한 장마당에서 사놀기는 했지만 입을 수 없던 청바지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집에서 몰래 친구들끼리 입어보며 자랑할 수도 있었던 편한 시간이었다.

북한에서 추석은 차례상에 올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전날에는 부실한 음식을 먹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 필자가 북한에 있었다면 진땀을 흘리며 음식 재료를 찾아 장마당으로, 개인 가정집으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사람’이라서, 나에게만 그런 거야?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영기 씨(35세, 가명)는 열여섯 살 때부터 가족들의 식량을 구하러 북한 전역을 떠돌다 1990년대 후반 처음 두만강을 건넜다. 이후 북한으로 잡혀 들어간 것만 네 차례, 두 번 다시 북송되지 않겠다며 2001년 말에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 대학 졸업 후 어렵디어렵다는 취업 문까지 통과해 여전한 은행원이 된 영기 씨는 이제 한국문화에 거의 적응했지만 가끔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며 2년 전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쇼핑몰 상담원 ‘이북 사셨죠?’ 말에 화들짝 놀라

얼마 전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을 때, 영기 씨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모 도서쇼핑몰에서 책을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심지어는 일주일도 지나도 책이 오지 않는 것이다. 참다 못한 영기 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책을 샀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일주일도 되도록 아무 연락도 없어요.”

회원 아이디를 묻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던 상담원은 “혹시 이북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이 말에 영기 씨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당시 이른바 ‘간첩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그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나 보다’라는 생각에 당황해서 말을 잊지 못했다.

“손님? 손님은 이북(E-book, 전자책)을 구매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북은 책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용 뷰어(이북을 보는 프로그램)로 보셔야 해요.”

알고 보니 종이 책이 아닌 이북(E-book)을 말한 것이었는데, 영기 씨는 이북(以北), 즉 북한으로 착각한 것이다.

영기 씨는 자신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북(E-book)에 대해 잘 몰랐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북이 완전히 일반화되지 않은 탓에, 남한 사람들도 다 이북을 알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주자, 영기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탈북민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나름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모른다, 탈북민이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선입견을 떨칠 수가 없네요.”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남한사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중년의 한 탈북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승·하차 단말기에 가방이나 지갑을 기계에 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아주머니도 슬쩍 가방을 대봤는데 3번 정도 연거푸 반복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 약간 화가 났다고 했다.

“버스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말인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북한사람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오해는 풀렸다고 했지만, 남북한 주민간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추석 차례상, 가짓수는 적어도 ‘고인’ 위한 음식으로

추석 때가 되면 남한에 친인척이 없는 탈북민들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차례를 지내거나 헌화를 한다.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수십 년간 이곳을 찾는 고령의 실향민들과 함께 먼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것이다. 정림이(가명)와 어머니 역시 명절 무렵이면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들이 더욱 그립다. 하지만 정림이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이 그리워도 사진 한 장 갖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누가 사진들을 태워버리라고 하기에 떠날 때 불살라버리고 왔어요. 혹시라도 탈북하다 잡힐까 봐, 나만 죽으면 죽었지 사진이 단서가 돼서 행여 친정 식구들한테 해가 될까 봐 도저히 못 가지고 오겠더라고요.”

방바닥을 닦다가도 식구들만 생각하면 금세 눈을 바람을 한다는 정림이 어머니는, 그리움도 사무치면 병이 된다며, 차라리 사진을 안 갖고 온 게 잘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정림이와 어머니는 추석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위주로 장만해 제사를 올린다. 정림이는 “남한 차례상을 보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다 쓰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가진 것이 딱 ‘물 한 사발’밖에 없어도, 망자를 생각하며 제를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으며, 자신의 고향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북한에서는 보리가 익기 전에 식량 떨어지곤 했어요. 식량을 배급할 때 옥수수과 쌀, 콩을 주는데, 그 안에 옥수수대까지 섞어서 주니까 식량이 늘 부족하거든요. 6월 하순에 보리를 수확하고 조금 있으면 감자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안 죽는 않지만, 3월부터 6월까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그 시기까지 못 기다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정림이 친구 엄마도 결국 굶다가 돌아가셨다. 마을 농장 바로 옆에 친구 엄마의 묘소가 있었는데, 정림이는 몇 년 뒤에 우연히 제사를 올리는 친구 가족을 봤다.

“물을 한 사발 떠놓고 아빠와 친구가 절을 하더니 아빠가 엉엉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수수죽이라도 올려놓고 싶은데 나도 2~3일을 굶었다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굶어죽어도 아들은 꼭 살릴 테니까 걱정 말고 꼭 쉬고 있으라고 약속하는 걸 봤어요. 본인도 굶었으니까 산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을 거 아녜요? 그런데 물 한 사발이라도 메고 가는 거죠. 고인을 위해 옥수수죽이라도 올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제사인 거죠. 비록 우리는 남한에 있고 아빠 산소는 북한에 있지만, 차례 음식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만들고 있어요.”

〈글. 기자희〉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남산봉화의 불꽃, 8천만 주민 통일염원에 불당기길!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제25회 통일기원남산봉화식 개최

동포여, 조국이어, 애끓는 세월이어! 이제 그 피 끓는 그리움을 넘어 끊었던 한민족의 한줄기 역사를 다시 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태워 올리는 저 힘찬 횃불에 8천만 우리 겨레의 간절한 통일염원을 담아, 통일 한반도에서 행복한 민주평화통일을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평화통일 기원 남산봉화식 '평화통일 메시지 낭독문' 中)

🔥 ‘흥겨운 밴드, 최정상급 성악 공연’에 시민들 호기심 가득

민주평통 서울중구협의회는 중구청과 함께 8월 12일(금) 남산 팔각정에서 ‘제25회 평화통일 기원 남산봉화식’을 열었다. 행복한 통일 에너지를 뜻하는 ‘평화’, 남남갈등의 대통합을 기원하는 ‘화합’, 구민 참여를 나타내는 ‘주인’이란 세 가지 주제로 열린 이번 봉화식에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외장과 대행기관장인 최창식 중구청장, 김기래 중구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탈북민을 포함한 지역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두 시간 반 전, 팔각정 앞에는 ‘누구나 봉수군’, ‘통일 기원 메시지로 한반도 지도 만들기’, ‘태극기 변천사 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열렸고 광복절을 맞아 가정용 차량용 태극기를 배포하는 유관단체 회원들의 손길이 바빴다.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 새 없이 밀려들었다. 통일기원판 앞에서는 부모님을 따라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이 환한 표정으로 브이 자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위가 어둑해지고 멀리 노을빛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자 갑자기 힘찬 금관악기 연주가 울리며 마칭밴드가 입장했다. 관중들의 시선을 한껏 받고 무대에 오른 미8군 스파르탄브라스밴드는 싸이의 노래 DADDY를 한국어로 부르는가 하면 아리랑과 비틀즈의 노래 Hey, Jude 등의 곡을 선사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김황경 씨가 '희망의 나라로', '축배의 노래' 등 대중적인 곡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30여 분간의 공연으로 한여름의 열기가 가실 무렵,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중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봉수군 열병식, 육조판서 입궐식 등이 재현됐으며 최창식 중구청장이 선조로 분장해 입장했다. 각 동별 봉수군 소개가 이어지자 참가자들은 창과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 올렸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함성과 힘찬 박수가 쏟아졌다.



25년만에 두 개의 봉화, 국론결집 강조

1부 행사는 양우진 서울 중구협의회장의 개막선언·인사말과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봉화를 올려야하는 위기상황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봉화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산위의 저 소나무처럼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는다면, 8천만 민족이 함께 봉화 불을 밝힐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 양우진 서울 중구협의회장



양우진 협의회장은 '2016년 제25회 통일기원 남산봉화식' 개막을 알린 뒤, "강도 높은 북한 도발과 사드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 등 국가안보가 염려되는 시점에 적이 국경을 출몰했음을 알리는 의미로 2개의 봉화를 올리게 됐는데, 이는 25년 남산 봉수대 행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기관장인 최창식 중구청장, 김기래 중구의회 구의장, 지상욱 국회의원 등 내외빈의 영상축사가 있었고, "두 동강이 난 한반도의 혈맥을 이어 자유와 평화 속에 하나 된 심장으로 세계를 향해 함께 웅비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이기선 민주평통 운영위원이 통일기원문을 낭독했다. 또한 무질서한 세속에서 변화 의지를 천명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하늘에 고하는 의미로 '대 북고천식'을 거행, 최창식 중구청장과 양우진 협의회장이 번갈아가며 대

북을 25회 힘차게 두드렸다.

육조판서의 회의 재현 후 평화통일 기원 봉화 피워올려

2부 순서에서는 당시 목역산(남산)의 봉화가 점화수 품달 육조판서 회의를 통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임금에게 전교되었는지를 공연을 통해 보여줬다. 육조판서회의는 일종의 비상대책 국무회의로, 이날 행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소총으로 무장한 왜군 2만여 명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1594년 선조 31년 임진왜란 때의 일을 재현했다.



영의정과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육조판서는 중구 협의회 함정호 수석부회장, 조만호·최우정 부회장, 이종현 사회복지 분과위원장, 심상문·이대일 운영위원, 김동현 자문위원 등이 맡았다. 열대야 속, 자문위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약 3시간 가까이 두꺼운 무대복을 입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공연에 임했다.



▲ 육조판서회의

이어 육조판서로부터 봉화점화수를 품달 받은 내빈들은 직접 횃불을 점화해 무대 뒷길을 따라서 봉수대 앞으로 이동했으며, 봉화점화식은 무대에 마련된 영상화면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생중계 됐다. 봉수 의식에서는 김기래 구의장이 평화통일 메시지를 낭독해 북녘동포에게 통일을 고하는 마음을 전달했고, 내빈들은 중앙봉수대 화고 앞으로 모인 뒤 지해경 상임고문의 '통일 기원 만세삼창'을 끝으로 봉수대에 봉화를 피워 올렸다. 기념식 후에는 드럼 타악 연주, 중구 구립합창단의 통일의 노래, 전통무용 등의 축하 무대가 펼쳐져 한 여름 밤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행사 참여·관람 소감

대한민국의 '성장판' 열어줄 평화통일



김기래 의회의장(중구)

많은 지역주민들이 광복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모습을 보며 남산봉화식이 오래도록 계승되어야 할 뜻 깊은 행사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통일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리고 성장판이 닫혀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더 큰 발전 동력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통일에 대한 공동적 가치가 각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민숙 부회장(중구협의회)

오늘 육조판서 회의의 의복 준비 등을 도왔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속옷까지 다 젖었을 것 같아요. 남산봉화식은 국가관이나 통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고, 나름 보람을 가져다준 것 같아요.



김동현 청년자문위원(중구협의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해뜨기 직전에 가장 어렵다는 밀처럼 통일이 곧 찾아올 거라고 믿고 남북한주민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창훈·윤덕현(한양중학교 3학년)

동네에 붙어 있는 행사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됐어요. 처음 와봤는데, 솔직히 평소에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에라도 와서 보면 왠지 통일에 대한 염원이 생기는 것 같고, 통일이 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대주제로 ‘2016년 3분기 정책건의’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민주평통(수석부위원장 유호열·사무처장 권태오)은 지난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16년 3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다. 민주평통 9개 분과위원회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대북·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건의 보고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유호열 수석부위원장과 권태오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 3분기 정책건의에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국면의 지속화 방안 △국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제공조 강화방안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대응방안 △남남갈등 해소 등 국문결집 방안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방안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민주평통의 역할 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출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 9개 분과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건의 종합집필팀 회의’와 ‘종합검토회의’를 통해 최종 정책건의보고서를 성안하고, 오는 10월 초 의장 보고를 추진할 예정이

서울지역회의 '2016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 개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더 행복한 우리'를 위한 소통의 장 열어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8월 20일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2016 통일공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여성분과위원회(김영숙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3년 차, '더 행복한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남북한 주민이 한 팀을 이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남북한 주민화합의 축제'로 치러졌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마음을 단단하게 잇고,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영숙 서울지역회의 여성분과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모두가 통일리더가 되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없도록 국민을 하나로 묶어나가자"고 역설했다. 종로구, 중구 등 13개 지역 탈북민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가족팀과 성동구, 광진구 등 12개 지역이 연합한 한마음 팀은 이날 통일로 가는 기차, 통일 OX퀴즈, 피구, 줄다리기, 한가족 릴레이 등 다양한 게임에 참여해 실력을 겨뤘으며, 부대행사로 마련된 다양한 재능기부공연을 관람한 뒤 '우리의 소원'을 전원 이 합창하며 행사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2016년 제주지역 자문위원 연수 실시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8월 20일 제주화라리조트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지역 2개 시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2016년 제주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문위원들의 통일 활동 역량을 높이고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자문위원연수에서는 유호열 수석부의장이 '통일 대한민국, 민주평통이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자문위원의 역할과 민주평통의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인수 박사의 '최근 북한 내 부정세와 대남 전략 실체' 강연,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통일 미래비전과 우리의 역할' 강연과 더불어 통일4행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달빛(대구-광주) 통일 한마음 음악회' 개최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8월 19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대구 및 광주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대구시민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대구-광주) 통일 한마음 음악회'를 열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영·호남이 화합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대통합 기반을 조성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1, 2부 공연과 함께 '북한핵실험규탄대회 결의문'을 채택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야기된 엄중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본 행사에서는 성악 앙상블 4인조 벨트라움과 탈북 가수 김정원, 바리톤 노희섭, 소프라노 강민성, 가수 배일호·김양 씨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 경북지역 통일여론 수렴 간담회 (경북지역회의)

▲ 민주평통 대행기관장 감사패 수여 (경기 안산시협의회)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7월 26일 신임 권태오 사무처장과 한삼화 부의장, 23개 시·군협의회 협의회장 및 임원, 경북도행정부지

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 통일 여론 수렴 간담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안산시청에서 박해진 경기지역부의장과 임원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기관장인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 청년과 함께하는 통일 특특유 (충남 홍성군협의회)
- ▼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인천 동구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8월 7일 홍성군 청년회의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통일 특특유'**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현주 북한이탈주민 감사에게 북한의 실상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통일토크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인천 동구협의회(회장 백승중)는 7월 29일 인천동구노인복지관 강당에서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2016년 자매결연 합동정례회의 (전남 강진군협의회&부산 금정구협의회)



▲ 통일문화사업 개치를 위한 업무협약 (경기 용인시협의회)



▲ 제17기 부산지역 청년위원회 업무회의 (부산지역회의)

전남 강진군협의회(회장 안영진)는 30일 강진군청에서 자매교류 협의회인 **부산금정구협의회(회장 김재두)**를 초청해 **'2016년 자매결연 합동정례회의'**를 열었으며,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8월 1일 협의회사무실에서 협의회 간사 및 대행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문화사업 개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또한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8월 11일 지역회의 사무실에서 도정식 부산청년위원장과 부산지역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 부산지역 대학생 밴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부산지역 청년위원회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 청소년 통일기행 체험교육 (경북 영주시협의회)



▲ 청소년 통일공감체험 판문점 견학 (서울 중랑구협의회)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7월 28일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임진각일대에서 '청소년 통일기행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23일 관내 고등학생들과 함께 '청소년통일공감체험 판문점 견학'을 다녀왔다.



▲ 청소년 통일준비캠프 (대구 서구협의회)



▼ 통일 미래 주역 남북 청소년들의 통일 이야기 (제주 제주시협의회)



▼ 유학생과 함께하는 남북통일 (충남 천안시협의회)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최종석)는 27일 대구 동구에 소재한 한 군부대에서 서구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준비캠프'를 개최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교육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강덕부)는 8월 4일 제주사대부고에서 한겨레학교 탈북청소년들과 통일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 '통일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80개국 외국인 유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학생과 함께하는 남북통일' 캠페인을 펼쳤다.

▼ 청소년 통일교육 (경기 과천시협의회)



▲ 2016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 (대구 남구협의회)

▼ 청소년나라사랑교육 (충북 충주시협의회)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2일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은 이날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서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17일 충주상업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나라사랑교육'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멘토-멘티 여름방학 캠프 (광주지역회의)

▼ 함께 해요! 어울림 멘토링 (인천 서구협의회)

광주지역회의(부위원장 최상준) 청년위원회(위원장 양승곤)는 8월 5~6일 멘토-멘티 및 가족 등과 함께 전쟁기념관,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JSA(공동경비구역) 일대로 '멘토-멘티 여름방학 캠프'를 다녀왔다. 또한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7월 23일 청라호수공원 인근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인 '함께 해요! 어울림 멘토링'의 일환으로 세일고 북한이탈주민 멘토링 동아리 새터울 멘토학생 및 지도교사, 멘티학생 등과 함께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가졌다.

▼ 2016 강원 어깨동무 여름방학 캠프
(강원지역회의)



▲ 2016 나라사랑 문화탐방 및 한마음대회
(경북 포항시협의회)



▲ 2016 징검다리 멘토링 방학 캠프
(인천 남구협의회)

강원지역회의(부위원장 박용성)는 청년위원회(청년위원장 전제원) 주관으로 7월 28~29일 통일동아리회원, 멘티 및 멘티가족, 또래친구 등과 함께 '2016 강원 어깨동무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했고,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는 8월 10일 경상북도청, 예천세계근충엑스포에서 '북한이달주민 경상북도 신청사 방문 및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또한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12일 인천 YWCA에서 허회숙 민주평통 인천부위원장, 민명숙 인천시여성위원장, 고수일 인천시청년위원장, 일반인 멘토단 및 탈북가정 멘티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징검다리 멘토링 방학 캠프'를 개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 (충남 금산군협의회)



▲ 통일공감대 확산 홍보 캠페인 (경남 거제시협의회)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태진수)는 7월 26일 금산다락원 소공연장과 여성들의 집 조리실습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을 개최했다. 제1부 통일강연에서는 탈북강사의 '북한의 실상' 강연이 있었으며, 제2부에서는 '북한음식 이야기'의 강의를 들은 후 북한음식인 통일주먹밥과 통일 비빔밥 만들기를 체험했다. 경남 거제시협의회(회장 김정길)는 7월 8일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제9회 도전 거제 여성 페스티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 통일골든벨 해외 역사탐방 (경기 하남시협의회)



▲ 2016 자문위원 통일역사탐방 (충북 청주시협의회)



▲ 통일공감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충남 예산군협의회)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7월 21~25일 지역사회의 통일리더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통일관을 정립하고자 백두산 및 고구려유적지를 다녀왔고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7월 25~29일 '2016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하남시협의회 대회' 입상 학생 및 지도교사와 함께 중국(남경, 항주, 상해) 일원으로 역사탐방을 실시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28일 임진각 일원으로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와 함께 '통일공감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을 개최했다.





▲ 나라사랑! 대한민국 태극기동산 조성 (충남 서산시협의회)



▲ 나라사랑 영화감상 (경기 파주시협의회)



▲ 함께해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경북 청도군협의회)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8월 1일 서산시청앞 솔빛공원에서 자문위원 및 가족들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동산'을 조성해 15일 광복절까지 게시했고, 경기 파주시협의회(회장 김경선)는 3일 파주시 공직자, 파주시민들과 함께 '나라사랑 영화감상(인천상륙작전 관람)'을 실시했으며, 경북 청도군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노현미)는 9일 청도시장에서 광복71주년을 맞아 가정용 태극기를 구매한 뒤 지역민에게 배포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 2016년 평화통일염원 한마음 걷기 (강원 삼척시협의회)



▲ 겨레사랑 태극기 나눠주기 (충남 공주시협의회)



▲ 제71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충북 영동군협의회)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김무호)는 10일 삼척실내체육관에서 대행기관장,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청소년 및 어린이집 원생 등과 함께 '2016년 평화통일염원 한마음 걷기' 행사를 열었으며,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12일 월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광복절을 맞아 관내 지역주민 대표에게 태극기를 전달했다.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영동군청과 함께 15일 영동체육관에서 지역민을 초청해 '제71주년 8.15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 한미합동위령제 (경북 칠곡군협의회)



▲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협약체결식 (전남지역회의)



▲ 지역주민 초청 '인천상륙작전' 영화관람 (경북 문경시협의회)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헌)는 17일 왜관을 아곡리 산자락에서 6.25전쟁기간 중 자고산 303고지를 지키려다 생사를 달리한 미군 포로들의 명복을 비는 '한미합동위령제'를 진행했고 같은 날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장영인)는 전남 22개 시·군협의회회장, 간사, 여성·청년·포럼위원장, 장흥군수 및 군청 임직원 등과 함께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경북 문경시협의회(회장 이재석)는 18일 국가보훈처가 '8월 6. 25전쟁 호국영웅'으로 선정한 박동진 중사의 고향주민들을 초청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봉사활동

▼ 백중절 합동 위령제 봉사활동 (경남 함양군협의회)





▼ 신규전입 탈북민에 생활용품 지원
(전북 전주시협의회)



▲ 통일로 나눔봉사단 12차 봉사활동
(경기 고양시협의회)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서정숙)는 8월 17일 함양군 하늘공원에서 열린 백중절 합동 위령제(지역 전통 행사)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8월 1일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관내 신규 전입 탈북민 가정들을 방문해 정착생활에 필요한 생활물품을 전달했고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박호영) 통일로 나눔봉사단은 7월 28일 시민자원봉사연합회 급식소를 찾아 12차 사회 나눔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 2016년 동북3성 청소년 통일캠프 (선양협의회)



민주평통 선양협의회(회장 안청락)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동북3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고등학생, 조선족 학생 및 교사 등과 함께 '2016년 동북3성 청소년 통일캠프'를 열었다. 통일캠프 첫째 날에는 압록강변에서 '평화통일 기원 희망의 등 띄우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황금평 경제특구와 단동신성 오금성 북중물류센터, 신압록강 대교 등 대북제재 등으로 소원해진 북중 경제협력의 현장을 돌아봤다. 이어 3~4일차에는 장수왕릉,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릉, 오녀산성, 고구려박물관 등 집안시의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했고, 끝으로 선양 한중교류문화원에서 해단식을 연 뒤 수료 인증서를 수여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 8.15광복절 기념 선포식 (LA협의회)



민주평통 LA협의회(회장 임태랑)는 8월 12일 LA시청에서 열린 '8.15광복절 기념 선포식 행사'에 참석했다. LA시의회가 주최하고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허브웨슨 시의장과 로라전 LA한인회장, 마유진 LA협의회 수석부회장, 랄프 안(도산 안창호 아들)

등이 참석했으며, 한인뿐 아니라 라티노 커뮤니티 등 타 인종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주민이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면서 축하해주었다.



▲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초청 강연회&제17기 협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샌프란시스코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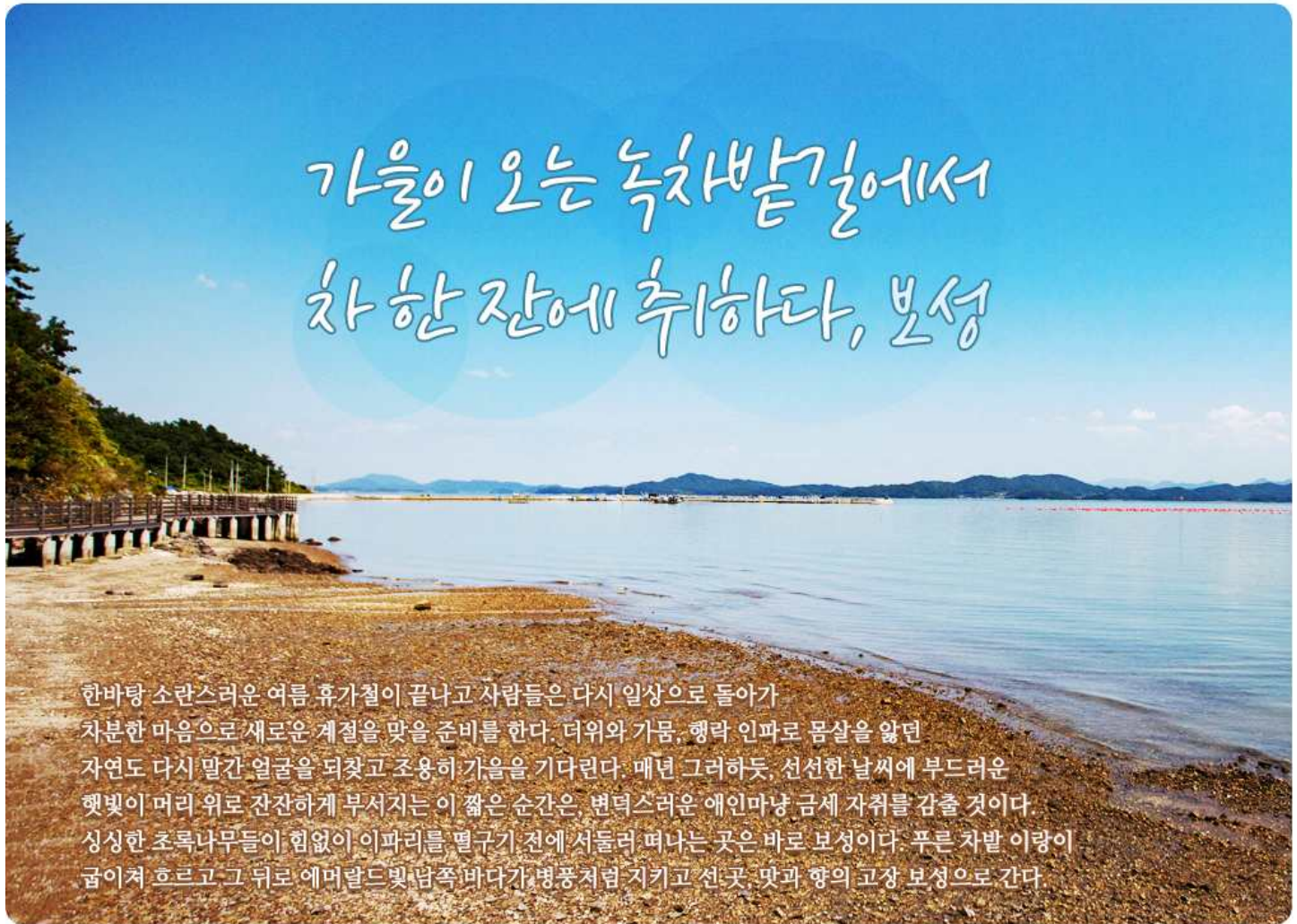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8월 4일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초청 강연회와 함께 제17기 협의회 출범 1주년을 기념식을 가졌다. 자문위원 및 단체장, 동포 지도층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은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고 미사일발사를 중지해야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UN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 등 가중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유일한 방어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UN의 제재를 착실히 수행하고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8월 22일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이해 앤도버 소재 국제선 교회에서 참전용사 보은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보스턴한인회, 노인회, 재향군인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매사추세츠주 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각 한인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전기념식을 갖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 참전용사 보은행사 (보스턴협의회)

가을이 오는 녹차밭길에서 차한잔에 추하다, 보성



한바탕 소란스러운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차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한다. 더위와 기름, 행락 인파로 몸살을 앓던
자연도 다시 말간 얼굴을 되찾고 조용히 가을을 기다린다. 매년 그러하듯, 선선한 날씨에 부드러운
햇빛이 머리 위로 잔잔하게 부서지는 이 짧은 순간은, 변덕스러운 애인마냥 금세 자취를 감출 것이다.
싱싱한 초록나무들이 힘없이 이파리를 떨구기 전에 서둘러 떠나는 곳은 바로 보성이다. 푸른 차밭 이랑이
굽이쳐 흐르고 그 뒤로 에메랄드빛 남쪽 바다가 병풍처럼 지키고 선 곳, 맛과 향의 고장 보성으로 간다.

🌿 자연과 인간의 거대한 예술작품 '보성 녹차 단지'

'녹차수도' 보성에서 제일가는 자랑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차 생산량의 34%를 차지한다는 녹차다. 보성 녹차 단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늘 높이 뻗은 삼나무 숲 터널이 방문객을 반기고, 이 숲길을 따라 100여 미터를 오르면 녹차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입구 옆에 녹차 관련 제품을 전시해놓은 자그마한 판매점을 지나쳐 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보성 녹차단지



중앙·차밭·바다전망대는 이름에 따라 각각 다른 컨셉으로 녹차 단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차밭과 바다전망대에 오르면 보성 녹차단지는 그 위용을 제대로 뽐내기 시작한다. 아래를



한국차박물관

향해 흐르면서 굽이굽이 녹색 물결을 일렁이는 녹차밭은 바다와 함께 어우러질 때 한 폭 그림으로 완성된다. 자연에 취해 풍경에 취해 걷노라면 어느새 출발했던 장소다. 시원한 녹차아이스크림을 산 뒤, 차밭 한 칸에 마련된 쉼터에 앉아 흘러내려 오는 물에 발을 담그면 녹차 단지를 둘러보느라고 '수고한' 밭의 피로가 사르르 풀린다. 차의 역사를 비롯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인근에 있는 '한국차박물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7080년대의 향수를 머금은 '득량역'

보성을 뒤로하고 벌교 향하는 길, 그 사이에는 최근 화제로 떠오른 역이 있다. 바로 1930년 12월 25일 일반 기차역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득량역이 그 주인공. 아니 득량역뿐 아니라 주변이 모두 주인공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다. 역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조성된 7080추억의 거리가 그때 그 시절 향수를 뽐내주고 있기 때문. 거리는 500m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지만 전파사, 양장점, 쌀 상회, 금은방, 연탄 집까지... 그 시절의 감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아이템(?)들이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다.

구경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단돈 천 원으로 하는 그때 그 시절 교복체험, 1977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다방에서의 커피 한 잔, 미용실로 가득한 요즘 이발관에서의 헤어커팅, 그리고 오락실과 '로라장'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참고로 체험은 유료(1천 원~5천 원), 마을관광은 무료다.



마을 이름에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지명인 '득량'이 이순신 장군과 연관 있는 것. '得糧'은 '식량을 얻다'는 말인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득량만 선소에서 무기와 병선을 만들고 군량미를 조달해 전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 따라 걷는 '벌교'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벌교다. 더구나 실제 소설에 나온 공간들이 존재하는 벌교는 소설 태백산맥은 물론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성지는 '태백산맥 문학거리'를 따라 하나하나 만날 수 있다.

1935년 8월 29일, 벌교 중심에 한옥과 일식이 혼합된 일본식 가옥이 세워진다.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오갔고, 전쟁을 겪으며 여관 혹은 상가로 그 모습을 달리했다. 그러다 2004년 역사 및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132호로 등록되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갔다. 8년간의 보수 공사 끝에 개관한 이곳은 '보성여관'이다.



현부자 집

소설 속 여관은 읍내 하나뿐인 여관이자 현부자 집 소유의 여관, 토벌대장 임만수와 대원들의 숙소로 묘사됐다. 현재 여관은 본래 기능을 회복해 '한옥스테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층 '다다미방'은 전시 혹은 회의장으로 대관하고 있다. 상설전시만 구경할 것이라면 1천 원의 입장료 혹은 카페에서 커피·차(4천 원)를 마시며 둘러봐도 된다. 보성여관 구경 후 '문학기행 지도' 따라 태백산맥 속 배경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보성여관 ~ 구 벌교금융조합 ~ 흥교 ~ 김범우의 집 ~ 소화다리 ~ 태백산맥박물관 ~ 소화의집 ~ 현부자집 ~ 죽도방죽 ~ 보성여관'을 둘러보는 코스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 자연의 참맛을 일깨워 주는 '별교 꼬막'

별교 하면 '꼬막', 꼬막 하면 '별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가 별교에서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별교의 갯벌은 모래 황토가 섞이지 않아 기름지고 차진 진흙 펄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꼬막을 품에 기른다. '양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대로도 꼬막은 훌륭한 반찬 노릇을 했다. 간간하고, 즐깃즐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와 있는 꼬막의 정이다. 별교 꼬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최근 세워진 '별교 꼬막 웰빙센터'의 '꼬막 웰빙 홍보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또한, 별교 곳곳에 준비해 있는 식당에 들러 싱싱한 '꼬막 정식' 한 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직접 꼬막을 잡아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별교 갯벌체험은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당일 체험과 1박 2일 체험, 두 가지로 진행된다. 갯벌 체험을 할 때면 '체면'과 '깔끔'은 금물이다. 온몸에 머드팩 범벅은 기본이기 때문이다. 빨배를 타고 나가 바닥에 철퍼덕 내려앉은 뒤 갯벌 아래를 슬금슬금 만지다 보면 손에 꼬막이 잡힌다. 처음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마음껏 갯벌을 만지며 바다 생물도 볼 수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체험하게 된다. 잡은 꼬막은 체험장에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글.사진 / 신영민〉

아빠! 말이 어떻게 경사져요?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 내 말이 경사지니?(북한말) = 내 말이 우습게 들리니?(남한말)

* 직매점(북한말) = 상점(남한말)

* 닭알(북한말) = 달걀(남한말)



감주는 빛깔이 탁하고 알코올 성분이 적은 탁주의 일종으로, 막걸리보다 단맛이 강해 '단술'이라 불리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상류층보다는 서민층이 주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농민들에게는 논밭 일을 마친 뒤,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술이기도 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열악한 탓에 모든 주민들이 감주를 즐길 순 없겠지만, 한가위 명절만큼은 다 함께 모여 달콤한 감주를 나눠 마시며 세상 시름을 잊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기를 바래본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 역시 감주나 막걸리, 모주 등의 탁주 문화가 발달해 있다. 근래에는 명절 등 특별한 날, 단호박감주나 대추감주 등 다양한 재료를 넣은 감주를 만들어 가족 친지와 함께 즐기곤 한다.

요리재료

누룩 100g, 쌀 500g, 면보, 밀봉할 수 있는 병



요리방법



① 쌀은 씻어서 6시간 이상 물에 불린다. 쌀을 씻을 때에는 쌀뜨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 불순물을 없애도록 하자.



② 씻은 쌀의 물기를 제거하고 면보 위에 올려 감싸준다. 찜기에 쌀을 넣은 면보를 얹고 한 시간가량 찌 뒤 30분간 뜸을 들인다.





3 그릇에 밥을 담고,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준 뒤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4 잘게 뺀 누룩을 그릇에 붓고 주걱을 이용해 골고루 섞어준다.



5 물에 끓여 멸균 소독한 병에 쌀과 누룩을 담아 밀봉한 다음 30℃ 내외에서 발효한다.



6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하루 이상 숙성시켜주면 완성.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식혜와 식해, 감주와 모주는 어떻게 다를까?

감주는 오늘날 단술, 식해, 식혜 등 남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혼동하기 쉽다. 식해는 가자미 등의 어류를 발효한 것 같고, 식혜는 쌀에 엿기름을 섞어 삭힌 음료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말사전'을 찾아보면 식해란 말이 없으며, 식해와 식혜 모두 '식혜'라고 통일해 표기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는 가자미로 만든 식해를 '가자미식혜'라고 표현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자미식해'라 표기하는 것.

또한, 감주는 모주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장술로 데워서 즐긴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사실 모주는 막걸리와 흑설탕을 섞어 만든 술이기에 그 종류가 다르며, 맛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북한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픈 영화나 드라마’ 이벤트 당선작

북한이야기를 전해주는 예능프로그램 ‘모란봉클럽’ 재미있어요!

모란봉이란 예능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 프로를 북한친구들과 같이 보면 좋겠네요. 북쪽 지방의 흥미진진한 지역색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영호남 지역색이 다른 것처럼 북한에서도 각 지역과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분들의 기 싸움 또한 이 프로그램의 재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쪽에서 온 여성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과 일상일단은 무엇인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반성해보는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활발한 우리와는 다르게, 아직은 가부장적 시대를 살아온 북한의 여성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때론 우리가 이해 못 할 부분이나 수긍할 수 없는 부분도 조금은 여과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남과 북의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으며,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 주민이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토론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일구)

이산가족의 아픔을 잘 보여주는 영화 ‘민우씨 오는 날’ 추천해요!



2014년 11월 개봉한 강제규 감독의 단편영화(28분) '민우씨 오는 날'을 추천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과 그로 인한 치명적인 후유증, 바로 이산가족에 대해 다른 영화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치유하지 못한 그 아픔을 주제로 다룬 짧고 강렬한 영화입니다. 치매에 걸린 연희 씨(문채원 분)는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했던 남편 민우 씨(고수 분)를 잊지 못하고, 민우 씨를 만나는 날만 애달게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은 늙고 치매에 걸렸지만 마음만은 젊고 어여쁜 연희 씨의 간절한 바람을 실상과 허구로 번갈아 보여주며 잘 연출하였습니다. 극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상봉버스에 몸을 실은 연희 씨 마음과 남북한의 지정학적 거리에 비해 너무나 먼 여정을 대치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은 남북관계에 대한 무게 있는 메시지 또한 담고 있습니다. 조금은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직 존재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기에는 훌륭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 '민우씨 오는 날'을 적극 추천합니다.

(같은하늘아래)

‘우리들’ 친구와의 우정을 그린 이 영화처럼, 남한과 북한도...

영화 '우리들'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극 중 선이(최수인 분)와 지아(설혜인 분)는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도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근래에 냉랭한 남한과 북한의 사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를 보며 느낀 건, 사소한 감정싸움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아름다운 시기의 찬란한 추억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북한친구들도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친구와의 우정, 더 나아가 남북간의 우정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영화라 추천합니다.

(멋진내일)



같은 듯 다른 남북한의

속담 찾기



개천에서 용난다(남) & 개천에서 ○○난다(북)

남북한이 분단된 사이 언어가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지방 사투리처럼 걸모양새만 조금 다를 뿐이죠.
속담만 봐도 '노루도 약이 나면 뒷다리를 문다(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우렁이도 두렁 넘을 꺾가 있다(굴벙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와 같이 매우 유사하단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천에서 용난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북한속담은 무엇일까요?

'용'이 대신 다른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정답도 좋고, '기발한 오답'을 보내주셔도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2016. 09. 05. ~ 2016. 09. 26.

당선자수 10명

응모방법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시상내역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앱을 통해 접속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응모해주세요.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북한의 추석 풍경'

OX퀴즈!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북한에서 추석은 어떤 풍경일까요?
우리와 같은 듯 다른 북한의 추석, '북한의 추석풍경' OX퀴즈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춰신 분 중 열 분을 선정해 커피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북한의 추석은 국경일이다. (OX)

북한에서 만드는 송편은 보통 남한보다 크기가 크다. (OX)

북한에서도 추석이 되면 성묘와 고향방문을 위해
민족대이동이 벌어진다. (OX)

※ 이번호 (9월호) 투데이남북 참조

■ 응모기간 : 2016. 09. 05. ~ 2016. 09. 26.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 (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 수 : 20명

■ 시상내역 :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교환권

※ 앱을 통해 접속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응모해주세요.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여름철 이겨내는 복날 보양식 추천'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rahkellybom@gmail.com	해바라기
2	**kery9006@naver.com	주준영
3	**126_@naver.com	도담이

🎁 '독립운동가 가로세로 낱말퀴즈' 이벤트

닉네임	휴대폰 번호	닉네임	휴대폰 번호
건강이맘45	010-**28-8259	오병욱	010-**10-2969
김종호	010-**29-2011	이경익	010-**74-0231
아빠대표	010-**93-0278	휘파하람	010-**96-1833
pony6736	010-**35-0272	역사의신	010-**37-2394
노리	010-**04-4241	이은숙	010-**27-0795
별빛	010-**18-4922	용복	010-**70-6449
심은영	010-**55-9443	김연아	010-**99-6602
자스민	010-**65-5384	민재민	010-**66-8566
사랑이	010-**21-3411	정수빈	010 **65 9963
고은아	010-**96-6196	민상중	010-**73-9206

🎁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18-6473	9	010-**63-6265
2	010-**09-7195	10	010-**50-4437
3	010-**18-7317	11	010-**43-0691
4	010-**51-1823	12	010-**88-5026

5	010-**88-9326	13	010-**00-5010
6	010-**13-2858	14	010-**06-3180
7	010-**32-1902	15	010-**83-6660
8	010-**65-9963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